경기 안좋은데…경쟁 과열 반려동물 업체 '개 힘드냥'

너도나도 용품점 개업에 월 매출 급감…분양시장 얼어붙어 경매가격도 하락

"경기가 좋지 않아 사람 먹는 것도 아끼는 상황에서 반려동물을 위해 돈 쓰는 게 줄 수 밖에요…."

광주시 북구에서 동물판매업을 하는 A씨는 자신의 매장 안에서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강아지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A씨 매장에는 총 16개의 케이지가 있는데, 모두 강아지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최근 강아지를 찾는 고객들이 확연히 줄어들었다"며 "데려온 지 서너 달이 넘어 벌써 생후 6개월이 되는 아이들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강아지는 법적으로 생후 2개월부터 판매가 가능하다.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시기이기도 한데, 소형견의 경우 생후 10개월이면 성장이 끝나는 만큼, 생후 4개월이 넘어서면 외면받기 십상이다.

A씨는 "최근 생후 6개월에 다다른 아이들을 '책임분양'하기도 했다. 접종비와 사료비 정도 값만 받고 분양을 원하는 고객에게 판매했는데 결국 50만원 이상 손해를 본 셈"이라며 "경기는 좋지 않고, 업체들은 늘어 이래저래 힘겨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경기침체의 늪 속에서 한창 몸집을 키워가던 반려동물 산업이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았다. 지역에서 빠르게 증가하던 반려동물 용품 판매업 등 관련 업계 사업자들의 속도 타들어 가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시장이 확장할 것이라고 믿으며 호기롭게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이례적인 불경기에 업계 간 경쟁마저 치열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반려동물 경매장에서 경매에 부쳐지는 강아지들의 가격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애견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대전 중구의 반려동물 경매장에서 70만원 선이던 '예쁜' 소형견의 경우 가격이 50만원 선까지 떨어졌다.

대전시의 한 반려동물 경매장에서 경매에 부처진 흰색 소형견을 두고 입찰이 진행되고 있다. 〈독자 제공〉

최근 경매장에서는 시작가격이 50만이던 강아지는 응찰자가 없자 시작가격을 30만원으로 깎은 결과 40만원에 낙찰되기도 했다.

광주에서 반려동물을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 B씨는 "경매가격 하락은 결국 애견 분양 시장이 얼어붙었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라며 "최근엔 경매시장에 나오는 강아지의 수가 지난해 말과 비교해 70% 수준인데도 가격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경기에 반려동물 키우기가 부담스러워지자 반려동물 판매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반려동물 분양 뿐만 아니라 기존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도 애견을 위한 각종 용품 등 관련 소비를 줄이고 있다.

광주시 북구 삼각동에서 애견용품점을 운영 중인 C씨는 "7000만원까지 올랐던 월 매출이 최근 5000만원 대로 떨어지면서 경기가 좋지 않다는 걸 체감하고 있다"며 "당장 액세서리 같은 품목의 매출이 급감했다"고 말했다.

경쟁과열도 반려동물 산업을 힘겹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국세청의 국세통계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현황' 자료를 보면 광주지역 애완용품점 사업자 수는 올해 3월 기준 25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1명보다 14.9% 늘었다. 2년 전(2021년) 194건에 비해서는 31%나 증가한 것이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광주시 동물위탁관리업 신규 인가 건수는 2020년 24건→2021년 27건(12.5 %↑)→2022년 29건(7.4%↑)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에도 새롭게 문을 연 곳만 6곳이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국세청-광주대 인재 발굴·양성 협약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윤영석)은 지난 5일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와 지역인재 발굴·양성을 위한 관·학 교류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광주대 세무회계학과 학생들의 세무현장 실습과 광주국세청 산하 공무원의 직무연수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다음달 7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부터 광주대 세무회계전공자가 신고도우미로 활동해 방문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윤영석(오른쪽) 광주지방국세청장과 김동진 광주대학교 총장이 지역인재 발굴·양성을 위한 교류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광주국세청 제공〉

윤영석 청장은 "광주대의 우수 인재들이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지식을 실무현장에서 적용 직무역량을 높이게 될 것"이라며 "학생들의 재능기부로 납세자에게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진 총장은 "광주국세청과 다양한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맞춤형 인재 양성은 물론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 이후 윤영석 청장은 광주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국세청 역할 등에 대해 특강을 펼쳤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경총, 청년일경험드림 참여 사업장 모집

13일까지 신청 접수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는 '광주청년일경험드림+(플러스)-기업형'에 참여해 지역 청년들에게 직무 현장에서 일경험을 제공할 14기 드림터(사업장)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 사업'은 지역 청년들이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추진 중이다.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광주지역에 소재를 둔 지역 미취업 청년에게 광주시 생활임금을 지원하고 다양한 직무경험과 직무역량 배양 기회를 제공해 노동시장 진입 촉진과 미취업의 장기화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행정안전부가 지원하고 광주시(청년정책관)가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광주지역 청년 5858명, 드림터 3836개사가 참여했다.

광주경총은 2019년부터 사업에 참여해 매년 상·하반기 드림청년을 선발해 일경험을 위한 일자리 제공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78개의 드림터에서 1148명의 청년이 일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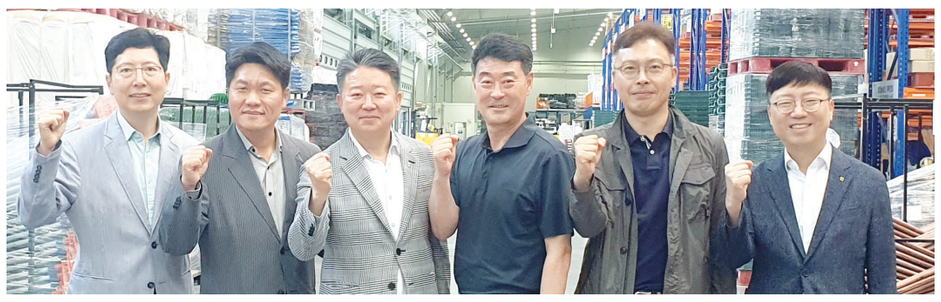
이번 하반기 사업은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신청마감은 오는 13일까지다.

참여 드림터는 참여 청년 인건비의 90%(월 156만2830원)를 지원받으며, 매달 10%(월 15만6280원)의 인건비를 부담하면 된다. 이밖에 현장교육비와 4대 사회보험 사업주부담금도 지원된다.

광주경총 관계자는 "참여 드림터는 지역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미취업 청년의 역량 강화를 돕는 등 청년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기업의 문화와 조직,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발굴·양성해 고질적인 고용 미스매치 해소와 기업의 인지도 향상,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광주경총 광주청년일경험드림 사업팀 전화(062-654-3441~2.)로 문의하면 된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전남농협-호남자재유통센터 업무 협의회

농협 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탁)와 농협호남자재유통센터는 지난달 31일 '시설 농자재 계통공급 확대 및 농자재 물량결집을 위한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

참석자들은 호남자재유통센터를 통한 농자재 적기 공급, 가격안정을 위한 물량결집 참여, 농업인 불편 해소, 영농비용 절감을 위한 합리적 가격 공급 등을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또 호남자재유통센터 자재 판매장 현대화 사업, 하우스 시공사업 참여 등 주요 사업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종곤 농협호남자재유통센터장은 "지역농협 자재센터가 활성화되고 농업인이 구입하고자하는 영농자재를 지역농협 자재센터에서 즉시 구매할 수 있도록 자재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탁 본부장은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영농자재의 적기공급과 가격안정을 통해 영농생산비 절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농협호남자재유통센터는 농협경제지주가 사업비 902억 원을 투입, 장성군에 조성된 1만700평 규모 시설로 전남·북 지역농협에 영농자재(1만6600개 품목) 및 농기계, 농기계부품(1만4800개 품목) 등을 공급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신보, 소상공인 창업교실 교육생 모집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오는 23일까지 도내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2023년도 소상공인 창업교실'의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전남신보는 2016년부터 전남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소상공인 맞춤형 교육·컨설팅·멘토링을 매년 지원해왔다.

창업교실은 화상회의프로그램(ZOOM)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오는 7월 3일부터 5일까지 총 3일간 교육을 진행한다.

과목은 소상공인 지원제도 안내부터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할 상권분석·마케팅·세무·노무·법률 과정으로 구성됐다.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각 분야별 전문가가 경영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일대일 밀착 컨설팅과 성공한 소상공인이 직접 사업장을 찾아가 매장관리, 메뉴개발 등 사업 노하우를 알려주는 멘토링을 제공하며, 창업교실 전 과정은 전라남도 지원을 통해 전액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취준생 10명 중 8명 "가장 선호하는 자격증 '컴활'"

광주상의, 자격증 수강생 조사…공무원·공공기관 채용 우대 혜택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선호하고 필요로 하는 국가 기술 자격증은 '컴퓨터활용능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상공회의소가 지난달 광주권 컴퓨터학원 25곳의 OA 자격증 수강생(235명)을 대상으로 상공회의소 시행 국가기술자격증 선호도 조사를 한 결과 응시 종목 1순위는 '컴퓨터활용능력(2급)'(53.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컴퓨터활용능력(1급)'(23.8%)이 2위를 차지했다.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2급과 1급을 포함해 77.3%에 달하는 것으로, 자격증 선호도에서 10명 중 8명은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을 꼽은 셈이다.

이들의 자격증 취득 목적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61%가 '취업'을 꼽았다. 이런 자격증 취득이 '목표 달성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라는 질문에는 52%가 '50~80% 미만'으로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취업 등 일자리 확보 가능성 개선(자격증 가점 혜택)'이 43%로, '해당 분야 전문성 입증'은 20%였다.

컴퓨터활용능력시험은 1급과 2급이 있으며, 1급은 엑셀(스프레드시트)과 엑세스(데이터베이스), 2급은 엑셀(스프레드시트)만으로 구성돼 있다.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으나, 시험과목과 난이도에서 차이가 난다.

무엇보다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공무원 채용(특정분야) 시 가산점, 300여개 공공기관·공기업 채용 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취업 뿐만 아니라 자기개발 및 인사·승진에도 플러스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게 광주상의의 설명이다.

앞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간한 2022년 국가기술자격 통계 연보를 봐도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시행하는 10개 기관(546종목) 중 '컴퓨터활용능력' 시험이 전체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광주시와 광주 5개 자치구에서는 시험에 응시한 청년(만 19~39세)에게 응시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광주상의 검정사업팀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 컴퓨터활용능력 시험이 취업 필수 자격증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기업 범위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웅 기자 pboxer@

청년도약계좌 출시 임박…6%대 금리 나올까

12개 은행, 8일 금리 게시

이달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앞두고 은행권에서 '6% 금리'가 나올지에 관심이 쏠린다.

'5년간 월 70만원씩 적금을 부어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한다'는 애초 정책 취지에 부합하려면 은행들이 연 6% 전후의 금리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12개 은행은 오는 8일 오전 10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청년도약계좌 금리를 1차 게시할 예정이다.

어떤 은행이 가장 높은 금리를 제시할 것인지, 6% 수준의 금리를 제시하는 은행들이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이 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라며 "6% 수준의 금리가 책정될 경우 애초 정부가 제시한 시나리오가 무리 없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 등을 더해 5000만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기도 하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사전점검 회의를 열고 "취급기관은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이라는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며 "당장의 수익성보다는 미래의 고객을 확보한다는 측면,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은행들로서도 시중금리 하락기에 6% 수준의 금리 설정이 상당한 부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인상기가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설정했을 경우 역마진 우려 등이 생길 수 있다"며 "가입 후 첫 3년은 고정금리로 적용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